



프로폴리스의 위력

두리원 대표 김해룡
한국자연 건강연구회 이사

-지난호이어서-

13. 자연과 건강

11. 황장엽과 후두염

적대 국가의 기밀을 탐지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훈련된 간첩을 침투시킬 수도 있고, 난민을 납치하여 세뇌공작을 시킨 뒤 공작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간첩이 들어가서 인명을 살상하지 않는 한 큰 증오심은 갖지 않는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 정도의 일은 능히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전에 이를 감지하지 못한 자국의 수사기관을 도리어 원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명피해를 주거나 국가원수를 살해하기 위해 특수 공작원을 대량 침투시킬 때는 전쟁도발 행위로 보게 된다.

단시간에 특공대 2~3천명을 남파할 수 있는 땅굴을 팠다면 이는 엄연한 전쟁 도발이다.

북한은 해방 이후 50년간 국민의 민생은 외면하고 오로지 전쟁준비를 위해 모든 전력을 다 여기에 기울여 왔다. 무력을 사용해서 어느 한쪽이 승리했다 해도 남는 것은 폐허와 고아의 잔재만이 남게 될 것이고, 사상대립으로 인한 시기와 분쟁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상 및 전과 조사 뒤에는 보복과 처형도 이어질 것인데..., 이런 비극의 참화가 민족간에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무력 침공은 어느 쪽에서도 없어야 한다. 그러나 어느 한쪽은 전쟁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도발의 기회만 노리고 있다면 이쪽에서도 한치의 빈틈도 보여서는 안될 것이고, 군사 장비도 그들보다 항상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선제 공격자는 약자에게는 한 없이 강해도 강자에게는 또한 약한 것이 그들의 습성이다.

일부 식자들 가운데는 “식량해결도 하지 못하고 아사 지경에 있는 그들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은 이미 없어졌다”고 단언하는 것도 그들에게 허점을 보여줄 수 있는 구실이 된다.

취도 막다른 위기에 처하면 고양이에게 대항하듯이

그들(남한)을 해방시키기 위해 전쟁준비 하였던 것이 북한의 경제를 침몰로 몰아넣은 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원인을 남한쪽에 돌림으로써 증오심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나오는 증오의 잔재가 이래도 망하고 저래도 망하는 처지라는 단언할 때 전쟁이라는 막판의 도발도 가능해진다.

황장엽을 위장망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앞으로 살아 보아야 10년 전후인 데 안일한 삶이나, 출세하기 위해 망명했다고는 볼 수 없다. 학자에게는 순수한 양심이 살아 있다. 그 양심을 갖고 있을 때 학자다. 그런 양심이 있었기에 가족의 안위보다 민족의 안위를 더 사랑할 수 있었고, 그것이 또한 그러한 결단을 내릴 수 있게 한 것이다.

학자의 모습이 풍기는 황장엽씨가 10년간 후두염으로 고생한다고 할 때 그분에게 도울 수 있는 길이 열릴까? 해서 안전기획부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

12. 안전기획부 담당자 귀하

지난 10일 황장엽씨가 안전기획부에서 기자회견 때 “개인보다 가족이 중요하고, 가족보다 민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을 버리고 망명했다”고 할 때 학자로서 살아있는 양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뜨거운 박수를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날, 황장엽씨 기자회견으로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에게 반공에 대한 인식을 더욱 높여 주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관상으로는 황장엽씨가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으로는 10년째 인후염으로 고생하고 있다 하시므로 그분께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저의 저서가 없다면 이 편지를 쓰지 않았겠지만 저서가 있고, 책 속에는 인후염에 좋다는 기사도 나와있기 때문에 쓰게 되었습니다.

부산초음교회(부산진구 초음동 475)에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몇분이 목이 안좋아서 저희 제품을 드시고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 여파로 성가대원



들이 모두 드시게 되었으며 오늘도 서은화(초음교회) 반주자가 대표로 와서 10통을 갖고 갔습니다.

프로폴리스를 14년간 취급한 경험에 의하면 아무리 심한 인후염도 3개월이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일본만 하여도 프로폴리스를 연구하는 의사나 학자들이 많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프로폴리스를 연구하는 의학자는 없습니다.

프로폴리스는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성분에 의해 피를 맑게 해줄 뿐 아니라 강한 소염, 항균작용까지 있어서 다양한 질환에 적용되고 있지만, 그래도 더욱 확실한 데가 압, 위궤양, 위염, 인후염, 치근염, 관절염, 요통, 생리통, 심장질환입니다. 효력에 비해 부작용은 거의 없습니다.

황장엽씨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먼저 책을 우송해 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7. 7. 14

김 해 용 드림

13. 프로폴리스 장래는 밝다

과학자나 학자가 연구할 때는 국가와 인류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업적에도 기여가 되어야 한다. 거기에서 충분한 연구비를 받을 수 있다면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금상첨화라 할 수 있다.

실용이 가능하거나 대체 효과를 위해 연구할 때는 국가기관이나 협력업체로부터 연구비를 받을 수 있지만, 봉산물만은 어느 기관에서도 연구비 받고 연구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인지 봉산물을 갖고 연구하는 기관이나 대학은 전무에 가깝고, 벌이 갖고 온 물질이 되다보니 농과대학에서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교수는 있다. 필자가 알기로는 전북대학교 농과대학에 박형기 교수와 상주산업대학 축산과 차용호 교수가 있다.

전북대학교에서 “프로폴리스를 활용한 육제품 보존에 관한 연구”로 석사 논문을 쓰고,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 일본 미야자키대학에서 유학하고 있는 한승관 씨가 있다.

며칠 전 이분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프로폴리스를 더 깊이있게 연구하기 위해 유학까지 간 그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프로폴리스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도 활발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벌에서 생산되는 물질로서는 프로폴리스, 로얄제리, 꽃가루, 봉독, 꿀 등이 국민건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지만, 봉산물을 연구해서 학위를 받았다는 이야기

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나 봉독을 주사약으로 개발시킨 재미 의학자는 있다. 10년전부터 알려지기 시작한 봉독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소염작용과 용혈작용(청혈작용)에 이용하기 위해 미식품의약품국(FDA)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아 개발시킨 분이 김문호(뉴저지 매머드 통증 연구소장)박사다.

봉산물중에서도 그 효과가 가장 뛰어난 프로폴리스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늦게나마 국내에서 뛰어난 젊은 연구가가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된다.

필자 자신이 그분에게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지만, 필자가 갖고 있는 자료와 국산원료만은 공급시켜 주려고 한다.

우리나라가 세계로 크게 뻗을 수 있는 길은 각자가 갖고 있는 두뇌를 유용하게 잘 활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전철안에서 책을 들고 있는 사람은 5%에 지나지 않고, 20%는 신문을 들고 있다. 그 신문의 80%가 스포츠 신문 아니면 연예계 신문이다.

야구선수가 흥분하나 치면 신문들이 떠들썩하고, 미국에서 박찬호 선수가 승리하면 한국이 떠들썩해진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과학자가 나올 수 있겠는가?

과학자가 특수한 것 하나 발명했을 때 그 사람을 크게 부각시키는 데는 매스컴이나 정부도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

과학자를 높이 우대하는 사회가 될 때 올해 부산에서 630개 업체가 도산(국민일고 97. 9. 11)되었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고의적인 부도가 아니고, 최선을 다하다 넘어질 때는 그 업체 뒤에는 눈물을 흘려야 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대기업이 넘어질 때는 국가 경제가 흔들린다. 그것도 한 업체가 아니고, 여러업체가 97년 한해에 넘어졌다. 우리 국민은 이것을 남의 일로 보지 말고, 나 자신의 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스포츠 신문을 발행해서 돈을 벌고 있는 언론사에서 적자를 감수해서라도 과학신문 하나쯤 발행해야 할 것이다. 신문사에서는 적자를 보겠지만, 국가발전에는 크게 공헌하는 것이 된다.

그 신문이 흑자가 될 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등국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14. 피가 맑으면 만병을 다스린다.

유럽의 과학자 발라리킨 박사의 프로폴리스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에 의하면 “프로폴리스는 파고토시스(식세포가 세균이나 이물질을 섭취)의 능력을 강화시켜 백혈구로 하여금 박테리아나 나쁜 물질을 섭취하도록 해서 피를 청결케한다”고 했다. 프로폴리스는 또한 독성물질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하므로써 병의 치유력을 높여준다고 했다.

“질병의 90%는 산성체질에서 온다”고 한 와타나베 박사의 말을 역으로 해석하면 피를 맑게하여 주면 질병의 90%는 낫게 된다는 말과도 상통한다.

성경에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피는 먹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과학적이다. 죽어가는 동물의 피 속에는 유독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그 생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 가운데 장수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산을 타면서 짐승을 잡는 포수들이 오래 살 것으로 보이지만 “피 마시기를 좋아하는 포수들은 60세를 넘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사슴피라고 하면 사족을 못쓰고 뉴질랜드나 태국까지 찾아가 그릇까지 훔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분류하면 두 부류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남의 말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부자가 되어 돈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지 사용처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식물을 해치려고 하면 식물이 먼저 알고 움추린다”는 실험결과도 나와 있다. 동물도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순간에는 독성물질을 낸다. 벌은 침 속에 독을 더 채우고, 뱀은 이에 모으고, 다른 동물들은 피 속에 간직한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것이 몸에 좋다고 먹고 있지만, 동물들은 죽어서 사람에게 복수하고 있는 것이 된다.

순간적으로 내는 독성물질은 옆에 약하다. 만약 이것을 꿀여서 먹을 때는 인체에 해가 없지만 그대로 먹으면 바로 독이 된다. 이것을 한 두 번 먹을 때는 모른다. 그날 저녁에는 귀한 것을 먹었다는 심리작용에 의해 몸이 다소 좋아졌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먹게 되면 일시적인 효능도 없어 지고 대신 신경질형으로 변할 수 있다.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에 찾아가지만 병명도 나오지 않고, 자신만이 아는 괴로움으로 이 병원, 저 병원을 찾아 다니는 부정수소증으로 고생하게 된다. 그러나 그 원인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으니 안타까움을 더할 수 밖에 없다. “선한 사람이 화를 내면 오히려 더 무섭다”는 말이 있다. 필자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은 말이 없고 순한 성격의 소유자다. 그런데 한 번은 더 참을 수 없다면서 도끼를 들고 그 집 재산 목록 1위인 소를 죽이겠다고 마구간에 쫓아 들어가니 부모까지 그 애에게 잘못했다고 비는 것을 보고 “이 세상에는 순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차이만은 있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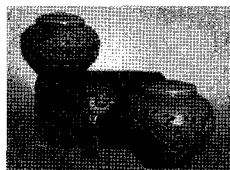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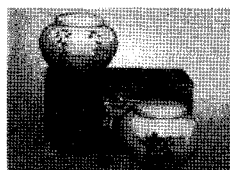
을 느꼈다. 가슴은 순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같지만, 죽을 때는 그 자리를 피하려고 최악을 발한다. 그런 피의 독을 마시고, 인간이 건강을 바란다면 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야생동물의 피라 해서 항상 깨끗한 것은 아니다. 순간적인 포악성에 의해 독이 될 수도 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혈액도 성품과 습성에 따라 탁해지면 나쁜 피가 될 수 있고, 맑으면 좋은 피가 된다. 우리 몸에 피가 맑아졌을 때 우리몸에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난다.

자연식 연구가로 유명한 안현필씨는 “피를 맑게 하여주면 3시간의 수면으로도 피로를 못 느낀다”고 했다. 피가 맑으면 감기도 오지 않고 질병도 하지 않게 된다. 이것을 역으로 해석하면 모든 병을 고친다는 말도 된다.

혈액을 맑게 해 주고, 세포를 활성화 시켜주면 자연 치유력에 의해 모든 병이 낫게 된다. 필자가 이것을 알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 그 뒤 스스로 고침을 받고서야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

-끝-



오늘날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은 무한경쟁 시대에 필수요건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오랜 경험을 토대로 보다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고객의 수요 충족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면, 더욱 정진하여 발전된 모습과 성숙한 이미지로 보답하겠습니다.



단지류 전문생산

한솔세라믹주식회사
경기도 광주시 신탄면 유사리 333
TEL : (031) 769-5222/3
FAX : (031) 769-5224